

베트남, 지난해 부동산기업 약 40% 파산 시장침체 직격탄 맞아..



지난해 베트남 부동산시장은 대출규제, 회사채 발행 제한 등으로 유동성이 부족한데다 건설자재 가격 급등으로 건설경기가 크게 위축되면서 부동산기업의 약 40%가 파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사이드비나지가 31일 보도했다. 이날 발표된 건설부의 부동산시장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부동산부문 신실법인은 8593개로 전년 대비 13.7% 증가했고, 영업을 재개한 기업도 2081개로 56.7% 증가했다. 반면 파산했거나 폐업 절차를 진행 중인 기업도 38.7%나 증가했다. 이 같이 부동산기업들의 파산이 크게 증가한 것

은 대출 및 회사채 발행 규제가 강화되면서 부동산 전문기업들은 지난해에 비해 자금 조달이 어려워졌다. 건설자재비도 크게 올라 분양을 못하는 등 건설경기가 바닥을 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이 때문에 기업들은 신규 프로젝트 연기, 대규모 해고 등 자구책 마련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지난해 10월까지 베트남의 회사채 발행액은 329조동(140억1640만달러)으로 전년 동기 대비 25% 감소했다. 이중 부동산기업의 회사채가 약 29%를 차지했다. 하노이증권거래소(HNX)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5일 기준 회사채 잔액 가운데 부동산기업이 발행한 회사채는 419조동(178.5억달러)으로 전체의 34%를 차지했다. 부동산 전문기업들은 지난해에 비해 불법행 사건으로 인해 투자자들의 투자심리가 약화될까 우려하고 있다. 특히 부동산기업들이 회사채 상환에 당분간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 같은 유동성 부족 외에도 글로벌 금리인상 기조와 고풍을, 유가의 상승 등도 부동산거래량도 급감하면서 중개인도 크게 줄었다. 이에 따라 건설부는 현재 부동산기업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회사채 발행 규제 완화를 관계부처들과 논의하고 있는 등 침체된 부동산시장을 되살릴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인사이드비나 2023.01.31)

북, '수교 73주년' 베트남과 친선 과시 "관계 계속 발전"

북한이 올해 수교 73주년을 맞은 베트남과의 친선 관계를 기념하며 관계 발전을 위한 의지를 다졌다고 연합뉴스가 1일 보도했다. 조선중앙통신은 1일 북한 주재 베트남 대사관 직원들이 양국 수교 73주년을 맞아 전날 만수대 언덕에 있는 김일성·김정일 동상에 꽃바구니를 진정했다고 보도했다. 두 나라는 1950년 외교관계를 수립했다. 선전 매체 조선의소리에는 전날 '범람없이 이어지는 친선 협조 관계' 제하 기사에서 북한과 베트남의 외교관계 수립 역사와 의의를 부각했다. 매체는 "두 나라

사이의 외교관계 수립은 제국주의를 반대하며 자주독립 사회주의를 위한 공동투쟁에서 친선의 유대(유대)를 강화하고 협조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려는 두 나라 인민들의 염원의 반영이었다"며 두 나라 관계는 "세기과 세대를 이어 새로운 높은 단계로 발전해왔다"고 설명했다. 특히 지난해에는 북한 정권 수립 74주년과 베트남 독립 77주년 등 주요 기념일마다 정상 간 축전이 교환됐으며 "전통적인 친선협조 관계가 두 나라 인민들의 이익에 맞게 계속 발전되리라"는 확신이 표명되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



서 "우리 인민은 반제 자주 사회주의를 위한 투쟁에서 언제나 지협조해온 두 나라 사이의 친선 협조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있다"고 강조했다. 북한과 베트남 관계는 한-베트남 수교로 한때 냉랭

하노이시, 동남아서 '여행하기 가장 안전한 도시' 5위 선정



했다. 관광청국인 태국 방콕은 7위, 인도네시아 발리는 10위였다. 뉴베오는 글로벌 사용자들의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전세계 416개 도시의 안전지수를 매겼다. 뉴베오는 안전을 '낮에 혼자 안전하게 걷는 것'과 '밤에 혼자 안전하게 걷는 것'으로 정의했다. 호찌민시는 안전지수 47.4점으로 밤에 혼자 걷는 것은 안전수준이 낮음'으로 평가되었다. 세계 순위는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가 안전지수 88.8로 1위를 기록했고 카타르 도하, 대만 타이베이, 싱가포르가 뒤를 이었다. 반면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지 않은 도시는 폭력과 살인으로 악명 높은 베네수엘라 수도 카라카스였다. 베트남은 올해 800만명의 외국인관광객 유치 목표를 한다. 또한 하노이시는 300만명, 호찌민시는 500만명을 목표로 한다. (인사이드비나 2023.02.01)

교통사고로 얼룩진 베트남 설 연휴 3만명 부상, 235명 사망



면 베트남 보건부는 음력 설인 '땃(Tet)' 연휴 기간인 지난 20일부터 27일 오전까지 교통사고로 인해 3만여명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고 235명이 숨졌다고 밝혔다. 폭력 사고로 인한 부상자 및 사망자도 속출했다. 약 3천 500명이 병원 신세를 졌으며 11명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다. 아울러 음주운전도 지난 해보다 약 600% 급증하여, 7700여명이 음주운전관련으로 벌금을 부과 받았으며, 일 반적인 교통위반 건수도 명절기간 22,000건 이 보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Vnexpress 2023.01.30)

베트남 은행들, 땃(Tet 설)이후 줄줄이 예금금리 인하, 0.1~1%p ↓



지난 수개월 동안 치열했던 월짜리는 9.3%로 0.5%p로 내렸다. 해양은행(Oceanbank), 박아은행(Bac A Bank), 동아 은행(Dong A Bank)과 같은 중소형은행들도 정기예금 금리를 줄줄이 인하하고 있다고 인사이드비나지가 31일 보도했다. 금리 인하폭은 은행마다 0.1%p부터 1%p까지 다양하다. 최대 민간은행인 테크콤은행(Techcombank), 비엠티은행(Vietcombank) 등은 1년짜리 정기예금 금리를 연 9.5%에서 9.2%로 0.3%p 인하했다. 6개월짜리는 9%에서 8.5%로 0.5%p 내렸다. 세콤은행(Saigombank)은 1년초과~3년짜리 온라인 정기예금 금리를 9.8%에서 9.2%로 0.4%p 인하했다. 사이공은행(Saigonbank)은 1년짜리 정기예금 금리를 9.4%로 0.6%p 내렸고, 1년 초과 상품은 9.5%로 1%p 내렸다. 또 6~8개월짜리는 9.2%로 0.4%p, 9~11개

* 본 메일은 광고주의 요청으로 씬짜오베트남에서 보내 드리는 홍보 메일입니다.

성공적 베트남 비즈니스 동반자 DAILY AD

씬짜오 베트남 잡지와
데일리 뉴스레터에 **광고주**를 모집합니다!

카카오톡 채널 "씬짜오베트남" (http://pf.kakao.com/_vaUwD) 현 2,100여명 회원 보유
한인사회 교민들이 주요 단톡방 50여곳에 배포

엄선된 그날의 주요 뉴스를 담은 씬짜오베트남 데일리뉴스와 함께 하는 높은 주목도로 뛰어난 광고 효과

광고문의 E.info@chaovietnam.co.kr
M.079.283.2000 | T.028.3511.1075 / 1095



건강 기능식품
생물유연인산

"한국의 조아바이톤을 이제 베트남에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야근, 회식 많은 아빠의
피로개선에 조아

쉽게 지치는 아이의
지구력에 조아

자주 깜빡하는 엄마의
기억력에 조아

조아 제약

기억력 · 지구력 향상에
우리집은 **조아바이톤**

☑ 기억력 개선 ☑ 지구력 증진 ☑ 면역력 증진 ☑ 피로 개선 도움을 줄 수 있음

구매문의: 077 494 5646 (한국인) 카카오톡 (ghsvina) | 077 999 5647 (베트남인)
주소: I-1.TM.07 1st Floor Block Iris, Hado Centrosa Garden No.200, 3/2 Street, Ward 12, District 10, Hochiminh City, Vietnam.

베트남 신도시 효과...대우건설 '깜짝실적'



대우건설이 지난해 창사 이래 최대 영업이익을 올렸다고 매일경제가 보도했다. 대우건설은 지난해 매출액이 전년 대비 20% 증가한 10조4192억원, 영업이익은 2.9% 늘어난 7600억원을 기록했다고 31일 밝혔다. 당기순이익은 5080억원으로 전년 대비 4.8% 늘었다. 작년 4분기 기준 영업이익은 2468억원으로 에프앤가이드가 집계한 컨센서스(시장 전망치)를 26.9% 웃돌았다. 대우건설의 지난해 연간 사업 부문별 매출액을 살펴보면 주택건축이 61%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토목

(18.2%) 플랜트(13.9%) 순으로 매출 비중이 높았다. 작년 신규 수익액은 14조1205억원으로 전년보다 27.5% 늘었다. 이 가운데 국내에서 12조3550억원을 올렸고 해외는 1조7745억원 규모였다. 신규 수주 확대에 힘입어 수주잔액도 45조5454억원으로 전년 대비 8.3% 증가했다. 해외 지역별로는 중동에서 2조7581억원(38.8%)을 수주해 규모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아프리카(33.2%) 아시아(27.8%) 남미(0.2%)가 뒤를 이었다. 해외 부문별로는 토목(55.1%)이 가장 많았고 플랜트(34.1%)가 다음이었다. 대우건설은 올해 목표 하는 신규 수주 규모와 매출액을 각각 12조3000억원, 10조9000억원으로 제시했다. 송유림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4분기 베트남 THI 법인 매출이 4000억원 가량 반영된 것이 깜짝 실적을 낸 주된 이유"라면서 "올해 분양을 통해 1만8279가구를 공급할 계획이 수주해 규모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프리카(33.2%) 아시아(27.8%) 남미(0.2%)가 뒤를 이었고 고 설명했다. (매일경제 2023.01.31)

초코파이 이젠 베트남 러시아서도 잘 팔린다 오리온 주가 탄력

오리온이 중국, 러시아, 베트남 시장에서 매출을 늘리며 주가가 상승하고 있다고 매일경제가 31일 보도했다. 이날 한국거래소 발표에 따르면 이번달 초 하락세를 보이던 오리온은 중순부터 반등세를 보이며 이날 전 거래일보다 0.65% 오른 12만45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오리온의 지난해 4분기 실적은 초코파이, 포카칩 등 대표상품들의 중국, 베트남, 러시아 등 해외 매출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면서 개선될 것으로 추정된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오리온의 4분기 매출, 영업이익의 컨

센서스(증권사 추정치 평균)는 각각 2조7919억원, 4588억원으로 전년 대비 18.53%, 23.04% 올랐다. 오리온의 영업이익률도 광고 판촉비 축소 등에 따라 지난해 2분기 14.3%에서 3분기 16.4%, 4분기(예상치) 17.5%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차재현 DB금융투자 연구원은 "신제품 출시 성공과 판매지역 확대 영향으로 베트남, 러시아 등에서 매출 고성장 이 지속되고 있다"며 "중국 지역의 스낵 매출도 견고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장지혜 DS투자증권 연구원도 "러시아 신제품 매출 성



장, 중국 출고 물량 증가, 베트남 매출 증가에 따라 성장세를 이어 신규 카테고리 확장 등의 영향으로 갈 것으로 보인다. 오리온의 올해 매출, 영업이익 컨센서스는 각각 3조1550억원, 5097억원으로 전년 대비 8.01%, 11.09%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매일경제 2023.01.31)

베트남 최고의 임대공장 및 임대창고
10대 핵심산업 도시 ★ 35개 프로젝트 ★ 2.465백만평의 토지 보유
BWID고객 수 211개 기업 24개국

- ✓ 위치: 하노이, 호치민시 인근 - 약 30분부터
- ✓ 즉시 입주가능
- ✓ 다양한 면적 (최소 302평)
- ✓ 저렴한 임대료
- ✓ 공장설립 무료상담 및 인허가 무료지원

➢ BWID와 함께 베트남 진출을 시작하십시오
 핫라인: (+84) 28 710 29 000
 이메일: leasing@bwidjsc.com
 Kakao Talk ID: VaniDang

고객 가치를 우선으로 하는 자동화 설비 전문기업 극동 비나!

• 로봇 응용 자동화 제작
• 유공압 프레스 제작

• 몰딩 커팅 프레스 제작
• 운반 자동화 제작

• 히팅 건조 챔버 제작
• 냉각 기계 제작

KUKDONG MACHINERY CO., LTD.
(주)극 동 기 계

Tel. 090 318 2669(KOR) / 090 180 0119(VN) | E-mail. byungkwon.cho@kukdongcorp.com
 Add. số 13 Khu Công Nghiệp Amata, Long Bình, Thành phố Biên Hòa, Đồng Nai

자연스러움에
아름다움을 더 하다

Dr. Yoon

최신장비보다
중요한 것은 실력이다!

**18년 경력의 성형외과
전문의의 자부심!**

저희 Dr. Yoon 클리닉은 한국의 선진적인 성형 의료기술을 베트남에서도 제공할 수 있도록 한국 성형 전문가 상담과 수술, 경과체크까지 직접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 곳만 빼어나다고 하여 아름답다고 할 수 없듯이 전체적인 조화를 중시하는 한국의 선진의료기술을 이젠 호찌민에서도 만나보시길 바랍니다.

원장 윤정욱
Dr. Yoon Jung Wook

- 동아대학교 의학 석사 및 박사과정 (2000~2011)
- 포에버성형외과 피부과 해운대점 원장 (2013~2016)
- 포에버성형외과 피부과 창원점 원장 (2015~2016)
- 인스타성형외과 피부과 원장 (2016~2018)
- 러블리성형외과 피부과 창원점 원장 (2018~2019)
- 현재 DR. Yoon Beauty (Vietnam) 원장 (2020~현재)

전문시술분야
Plastic surgery
실리프팅, 리프팅, 지방흡, 눈, 코, 성형 등 수술상당

Skincare
토닝, 레이저, 여드름, 점, 잡티, 모공, 흉터레이저, 기미, 사마귀, 물광 피부, 통증없는 시술, 스킨 보톡스, 필러, 리주란, 비텐, PRP

진료 시간 : 월요일 ~ 일요일 09:00 ~ 18:00 (화요일 휴무) | 연락처 : 090 285 9219(KR) / 076 851 3787(VN)
 주소 : 14 Phan Kiem Ich, Hung Gia 1, Tan Phong, Q7 | 폴리락원 골목 옥린해상문 근방

Ch 신짜오베트남

매일 발행 되는 신짜오베트남 데일리뉴스를 카톡 채널에서 자세히 보실 수 있습니다.

성공적 베트남 비즈니스의 동반자

DAILYAD

광고문의

E. info@chaovietnam.co.kr
M.079.283.2000 | T. 028.3511.1075/1095

신짜오베트남
XIN CHAO VIETNAM

신짜오 베트남 잡지와 데일리 뉴스레터에 **광고주**를 모십니다!

카카오채널 "신짜오베트남" (http://pf.kakao.com/_vaUWd)
 현 2,100여명 회원 보유 한인사회 교민들이 주요 단톡방 50여곳에 배포